

“광주 희망이 넘치는 기회의 광장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돌봄·창업·Y벨트’ 본격화
“시민과 당당하게 광주답게”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도시 워킹그룹’을 운영,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뜻과 함께 실질적인 2045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창업’으로 대표되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인프라 구축·자금 지원·대기업 성공 노하우 전수 등 삼박자를 맞춰 혁신적인 창업 성공을 지원하고, 실패조차도 기회도시 광주의 자산으로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 완공될 광주역 창업벨리를 호남권 최대 창업혁신

단지로 구축하겠다”며 “현재 조성 중인 7개 펀드 3000억에, 창업성장 사다리펀드를 더해 5000억 펀드를 만들고 창업 기업 성공의 마중물로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삼성과 함께하는 ‘씨랩(C-lab) 아웃사이드 광주’로 스마트팩토리를 확대하고, 제조업 혁신을 통해 광주를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 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내년 완공되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 A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새로 시작할 AI 2단계 사업 고도화에 주력하겠다”며 “전남과 함께 우리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 중인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집적단지를 광주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강 시장은 “영산강 Y벨트로 대표되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무등산과 광주천의 시대를 이어받아 영산강과 서해안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어느 곳과도 연결되고 확장이 가능한 Y벨트에 민선 8기가 추구하는 누리는 기회를 담겠다”고 말했다.

“광주에 사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회이자 자부심이 되도록 시민과 당당하게 광주답게 2023년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

“참여·소통·혁신만이 살 길”

미래먹거리 산업·5+1현안 해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계묘년(癸卯年) 새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광산2·더불어민주당)은 신년 3대 키워드로 참여와 소통, 혁신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참여와 소통을 대 전제로, ‘함께 잘 살자’는 대동·협업정신이 담긴 유유 녹명(??鹿鳴)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 번 결을 지키 겠다”고 밝혔다. 유유녹명은 ‘사슴은 여러 동물 중 유일 하게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서 먹지 않고, 배고픈 동료와 함께 먹기 위해 소리 높여 운다’는 시경(詩經) 소아 편에 나오는 글귀다.

정 의장은 “2023년은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 만큼, 많은 기회를 잡고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 첫째의 값진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와 시민 뜻 반영, 의정혁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우선 “정치와 행정의 출발은 주권자인 시민 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시민 뜻을 파악하는 확실한 방법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이라며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시정과 교육행정이 시민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민들의 뜻을 시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의 뜻과 생각을 시정에 반영 시킴으로써 시의회가 시정을 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행정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민의를 실현하는 협업과 협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정혁신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의 방향은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의회 독립성 확보와 일하는 의회문화 정착 등을 위해 시의회의 정책과 조직, 공간을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광주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우고, 5+1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기대와 소망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김도기 기자

“민생살리기 경제 회복 집중”

도민 숙원사업 의과대 유치·국제행사 총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순천4·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계묘년에는 도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제과도 높은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남도의회 의회 의정 활동 화두는 민생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장은 “도의회 민생살리기 특위를 활용해 침체 된 지역경제 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며 사업지 현지 방문 실태조사와 함께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의 장을 만드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도민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대 유지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까지 전남도 22개 모든 시·군 의원을 포함해 구성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를 주축으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을 설득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서 의장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다”며 “전남이 갖고 있는 가치와 자원으로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지방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해 전남에서 열리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도 제시 했다.

그는 “새해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농업 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전국체전 등 굵직한 행사 들이 전남에서 개최된다”며 “교통, 숙박, 음식 등 관광 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의 재유행 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결국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일하는 의회라는 충실한 역할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남,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원년”

김영록 전남지사



글로벌 에너지 첨단산업 선도
균형발전 중심 전남실현 매진

김영록 지사는 “국고 예산 2년 연속 8조원 시대를 여는 등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새해는 세계로 뚫어주는 대외역량 강화 시대 원년으로 삼아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예산 8조 6500억 원을 확보하고,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지정 등 대외역량을 이끌 핵심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 됐다”고 자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세계로 우뚝 서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한 3가지 비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중심을 이끌 3대 추진 계획을 비롯해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실현을 위한 여덟 가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 김 지사는 “30조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 투자유치를 실현하고, 세계 최대 8.2기가와트(GW)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그린수소 에너지산업 조성, 글로벌 IT기업이 모이는 RE100 전용산업단지 조성해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첨단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관광산업이 융복

합된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방문의 해 국내 관광객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첨단농업 융복합지구,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친환경 수송 물류 플랫폼 구축, 스마트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남도장터US 등 판매망 확대를 통해 농수산물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수산물 수출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이끌기 위한 여덟 가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추진, 동부권 통합청사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실현은 민선 8기에도 계속된다.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상품과 이에 대한 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자·보증수수료 지원, 예년에 준하는 1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급격한 유가와 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지원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고,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가입대상과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김영록 지사는 “대전환 시대, 세계로 우뚝 서는 위대한 전남은 지금부터 우리 각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세계로 뚫어주는 대외역량 강화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획일적 교육 변화·실력 교육”

시미래교육·교육복지 강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시교육감이 획일화된 광주교육의 변화를 주장하며 내년에는 아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다양한 실력이 미래가 되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며 새해 포부를 드러냈다.

이 교육감은 “다른 색깔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을 나타내는 무지개처럼 학생 한명 한명에게는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 개성과 특성이 있다”며 “미래 광주교육은 학교환경에 맞춘 학생 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의 다양한 실력에 맞춰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광주교육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이다”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스토리텔링 365 스토리텔링을 설치하고 진정한 실력향상을 위해 1교 1대입 전문다독터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도 강화하겠다”며 “초등 학교에는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배치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교육격차해소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인공지능(AI)교육을 통해 미래 광주교육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는 광주형 시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예산 확보라는 첫 단추를 끼웠다”며 “초등학교에서 매주 1시간 이상 A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SW)교육을 실시하고, AI 영재고·AI마이스터고 설립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형 미래학교는 새로운 광주교육을 대표하는 학교 모델로,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자율성, 미래성, 포용성, 다양성, 공공성의 핵심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새롭게 추진되는 자치학교가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 교육감은 무엇보다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복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꿈드림 지원 사업’과 ‘광주희망사다리 교육재단’ 등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 교육 대전환 원년”

‘공존교실’ 지원·초등학교 진단평가 도입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023년을 전남형 미래교육자치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취임 이후 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한 결과 ‘전남교육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를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며 출발점은 교실이다”며 “공부하고 존중받는 교실인 ‘공존교실’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준별 학습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고 문해력, 난독, ADHD 등 학습 장애 요인도 초등학교 입학 시에 조기 진단해 치유하겠다”며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절대평가 모형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에는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해 학생들의 개인별 진로·진학·취업 상담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적정규모 학생 수를 유지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키워 도시 과밀학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재배치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독서교육·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감각을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독서가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도록 도교육청 내에 독서교육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며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수업지원 자료를 적극 개발해 보급하고, 각급 학교의 특화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 미래지향적 글로벌 전남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문화 국가와의 교류, 다문화 정착 가족 유입을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해 이중언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교육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교실도 디바이스 컨트롤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미래형 교실로 전환하고, 신설학교에 미래지향적 설계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배 기자